

“아토피 싹 날려요”…숲체험 인기

장성 백암산·장흥 억불산·광양 백운산

환경성질환 치료 프로그램 인파 몰려

장성 축령산과 백암산, 장흥 억불산, 광양 백운산 편백나무숲이 심신(心身)치유와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다문화가정 한글교실 16년째 운영

장흥공공도서관, 500여명 수료

장흥교육지원청 소속 장흥 공공도서관이 지역내 아주 노동자와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16년째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화제다.

23일 장흥 공공도서관에 따르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다문화가정 한글교실에 현재 8개 국에서 온 외국인 여성 4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입국한지 1년 미만인 초급, 한글의 기초를 익힌 중급, 입국한지 5년 이상 되는 고급반 등 수준별 반 편성을 통한 맞춤형 수업을 하고 있다.

지난 1996년 처음 시작한 한글교실에는 그동안 연인원 500여명이 거쳐 가는 등 장흥지역 다문화가정에 한글과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서는 2명의 교사가 일대일 대면학습을 통해 한글의 기초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생활 예절 등을 함께 가르치는 등 수강생들의 한국문화 정착을 돋구고 있다.

한글교실에는 교단에서 퇴직한 3명을 비롯해 지역의 언론사 관계자 등 모두 5명의 강사가 자원봉사를 하며 수강생들의 애로사항이나 고민상담도 해주고 있으며 군에서는 등학교 대중 교통비와 점심을 지원하고 있다.

한글교실 수강생들은 지난 2006년부터 자신들이 배운 한글로 쓴 편지와 수필 등을 담은 ‘나는 한국 어린이의 장한 엄마~이곳에 내 영혼을’이라는 문집을 4호까지 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장성, 피톤치드 체험 인기=장성군과 내장산 국립공원 백암사무소는 최근 아토피 아동 및 학부모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암산으로 떠나는 아토피 여행’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아토피를 앓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토피 증상 완화를 위해 비누 만들기와 잡꽃 열색체험 등 피톤치드 체험위주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토피 아동을 1년동안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숲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자연치유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장흥 ‘우드랜드’ 연 20만명 방문=장흥군은 억불산에 편백숲 치유·휴양 공간인 ‘우드랜드’를 비롯해 소금을 통해 아토피 치유를 돋는 ‘편백 소금집’, 음이온폭포·건강증진센터·온욕장 등이 설치된 ‘치유의 숲’을 조성했다.

억불산은 아토피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편백나무 숲이 90만m²(30만평)가량 펼쳐져 있다. 지난 5월초에는 우드랜드 편백숲과 편백 소금집 등지에서 ‘아토피 치료(힐링) 건강캠프’를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장흥군은 3월부터 오는 11월 까지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3개소를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아토피 안심학교’는 ▲아토피 환자 실태조사 ▲보건소 무료검진 실시 ▲대상자별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 ▲보습제 및 응급 키트 제공 ▲저소득층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으로 이뤄진다.

◇광양 백운산 심신 건강 명소로 각광=광양시는 지난 18일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기(氣)와 숲 체험’ 등 산행사를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1000여명이 참여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건강에 이로운 방향성 물질인 ‘피톤치드’를 다량 발산하는 편백나무와 삼나무, 소나무 등이 많이 식재돼 평소에도 많은 등산객과 휴양객들이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아토피질환은 꾸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며, 숲에서의 자연치유가 더 없이 좋은 치료법이다.”며 “아토피질환 치료를 위한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장흥 알스트로메리아 수확

장흥군 장평면 제신리에 위치한 장평화훼단지에서 알스트로메리아를 수확하고 있다. ‘배려’와 ‘새로운 만남’의 꽃말을 지닌 알스트로메리아는 젊은층에서 선호도가 높다.

<장흥군 제공>

목포시 ‘역사문화의 길’ 조성 박차

예술공원 착공…2018년까지 3개 경관길 조성

목포시가 원도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근대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해 목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목포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은 개항 100년의 역사를 지닌 원도심의 근대역사 자원을 활용해 ▲선창가의 개항역사지구 ▲북교·양동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지구 ▲오거리 일대의 창조 역사지구로 나눠 3개 경관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목포역사의 길’ 조성사업은 2010부터 2018년까지 3단계로 나눠 국비 95억원과 시비 174억원 등 모두 269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시는 원도심 청소년문화센터 옆 평화극장 부지 4098㎡에

23일 연말 준공 목표로 ‘목포 근대역사문화예술공원’을 착공했다.

예술공원은 상층부에 나무와 사계절 꽃을 심는 녹지공간을 꾸미고, 이

단연 여사를 비롯한 차밭·김지하·김우진·김진섭·박희상·김환기·이매

망 선생 등 목포지역 출신 근대문화

예술인을 모티브로 하는 조형물 4점을 공원에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체험·관광 학습장으로 조성된다.

또한 공원내 하부에는 문화단체 및 청소년문화센터의 다양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야외 공연장과 목포 문화

예술을 종합적으로 상징하는 조형물(높이 5m·폭 3.2m)을 설치한다.

예술공원이 조성되면 옛 일본영사관~근대 역사관~오거리 문화센터~청소년 문화센터를 잇는 목포의

근대역사문화 벨트를 형성, 지역주민의 문화생활과 관광객 유치 등 원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금까지 옛 청년회관을 리모델링해 연극전용극장인 낭교 소극장을 완공한데 이어 올해 목포 근대역사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하고 옛 일본영사관 주변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내년 옛 달성초등학교에 위치한 유달예술촌 리모델링사업을 비롯해 오는 2014년까지 근대역사문화유산 정비 등 1단계로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예술공원이 조성되면 옛 일본영사관~근대 역사관~오거리 문화센터~청소년 문화센터를 잇는 목포의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홍도분교 전교생 초청 워터투어

K-water 전남본부 2박3일 광주 일대 견학

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석천)는 지난 21~23일 2박3일간 신안군 홍도분교 전교생과 학부모, 교사 등 50여명을 초청, 도서지역 어린 이를 위한 ‘워터투어’를 실시했다.

한글교실 수강생들은 지난 2006년부터 자신들이 배운 한글로 쓴 편지와 수필 등을 담은 ‘나는 한국 어린이의 장한 엄마~이곳에 내 영혼을’이라는 문집을 4호까지 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워터투어는 홍도분교 대학생 21명과 유치원생 6명을 비롯해 교사 5명, 학부모 14명 등을 초청,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비롯해 담양 홍수조절지 맵과 평원립, 광주박물관, 5·18 평화공원, 목포 유달산 등을 견학했다.

특히 22일에는 무등 경기장을 직접 찾아 그동안 공중파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전남지역본부는 임직원들의 금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모금한 임직원 참여기금 등을 활용해 이번 워터투어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식비, 입장료 전액을 부담했다.

이석천 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특별초청은 도시와 도서간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낙도 어린이 체험학습 형식으로 마련됐다”며 “임직원들의 적은 정성이 도서지역의 꿈나무를 육성하는데 밀가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무사고 ‘건강시계’ 1000일

목포경찰서 달성 기념식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지난 22일 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무사고 ‘건강시계’ 1000일 달성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업무유공자 박진홍 주임과 이은영 행정관 등 청렴동아리 회원 표창과 함께 떡케이 절단식을 가졌다.

이어 김철수 외래강사를 초빙해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라는 주제의 특강을 가졌다.

김원국 서장은 “따뜻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신바람나게 일하자”며, “건강시계가 멈추지 않는 건강한 목포경찰이 되자”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지난 2008년 9월 21일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의무반 행위도 발생하지 않아 17일 현재 무사고 1000일을 기록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대인동삼일부동산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61)333-7077

101-3153-4242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휴(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앞,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별 유지빌딩 501

남구 대촌부근 주거지역

●남구 입암동 한일비래체 주변 대로변 인근 토지 1990m²(602평). 일반주거지역. 아스팔트포장도로 접함. 매매가 3.3억당 95만원. (슬래브 주택 30평 포함)

소태동 잡종지매매

●동구 소태동 대야아파트 부근. 잡종지 627m²(190평). 매매가 3.3억당 130만원. 복개된 국유지 구역 약 70평 별도 이용가능.

완도 독섬 매매

●완도군 금일면 독섬 매매. 면적 : 198.184m²(59,950평). 매매가 2만원. 지하수 있음. 종전에 사람이 살았으며 현재 무인도. 생산관리지역

전원주택지 매매

●남구 대지도동(대촌부근) 일반주거지역. 미들내 나대지 886m²(268평). 매매가 9800만원. (3.3m당 365,000원)

소촌동 공단내 공장매매

●광주 소촌동 소촌동 공단내 공장용지 660m²(200평). 매매가 3억.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화순군 도곡면 혁신리 도곡면 소재지지부근. 6.745m²(2,040평). 관리지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접함. 매매가 3.3m당 16만원. 농장 및 개인가능 임야 구함.

농장 및 개인가능 임야 구함

●무안 함평 영광 등 광주인근 토질 좋은 곳. 개인 가능한 임야도 좋음. 10,000m² ~ 70,000m².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회암동 대지 433m²(131평). 전.임.1994m²(603평) 구 주택 2동. 매매가 1억6,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010-3616-8698. 062-233-2222

중앙공인중개사

♣.상가건물

☆.운암동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2억원